

CV



김동현

Kim Dong hyun

1995.09.12

학 력

2023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금속공예디자인학과 석사 수료

202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금속공예디자인학과 졸업

2014 덕원예술고등학교 졸업

개인전

2023

INHERENCE(내재된 것들), 갤러리 도스, 서울, 한국

Mark Pattern,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다빈치관 미술관, 서울, 한국

아트페어

2023

공예트렌드페어, 코엑스, 서울, 한국

2022

공예트렌드페어, 코엑스, 서울, 한국

크라프트서울, 코엑스, 서울, 한국

그룹전

2023

Stoolstool,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다빈치관 미술관, 서울, 한국
교차지점, KCDF 갤러리, 서울, 한국

사물들의 우주, 갤러리 민정, 서울, 한국

2023 Youngartists Project 초대전, 갤러리 리디아, 서울, 한국

POTLUCK, 더아리움, 서울, 한국

2022

제 37회 쇠MADA 정기전, 갤러리 이즈, 서울, 한국

2021

제 22회 한국공예대전, 익산예술의전당, 익산, 한국

제 36회 쇠MADA 정기전, 갤러리 이즈, 서울, 한국

작은물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다빈치관 미술관, 서울, 한국

2020

제 21회 한국공예대전, 익산예술의전당, 익산, 한국

수상

제 21회 한국공예대전 _ 우수상

제 22회 한국공예대전 _ 입상

작품소장

2020_익산예술의전당, 대한민국

작가노트 요약

기억이란 세상을 마주하고, 자신을 구성하는 조각의 총 집합체이다.

동일한 시간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모든 순간들을 각기 다르게 저장하고 정의한다.

이렇게 저장된 여러 기억들은 하나의 집합체를 이루게 되는데, 한 사람의 가치관, 특정 대상에 대한 정의, 더 나아가 자신이 마주하는 세상이 되기도 한다.

외부로부터 받은 자극과 경험, 이를 저장하고 굳어진 하나의 기억이라는 요소를 금속 조각 단위형태(unit)로 표현을 한다.

사람마다 자신의 경험을 기억하는 과정과 방식이 반복되며 유사한 특징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유사한 단위형태를 반복하여 사용한다.

마치 기억의 총 집합체가 한 사람을 대변하듯 반복된 단위형태들은 하나의 미적 요소이자 구조로 활용되며 작가와 대중을 대변할 수 있는 존재, 작품이라는 대단위를 이루게 된다. 대중이 마주한 작품은 집합체로 인식되도록 하며, 작품을 관람하며 시간차로 이를 구성하고 있는 단위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하나의 작품을 이루기 위한 유사한 단위형태들을 관찰하며, **‘나’를 정의하는 경험과 기억, 가치관을 바라보고 더 나아가 ‘자신’을 재고**하도록 한다.

다양한 표면처리(연마, 착색, 헤어라인)를 활용하여 금속이라는 물성만이 가지고 있는 시각적 효과를 도출하며, 심미적인 표현을 이끌어 낸다. 작가는 금속 재료를 활용한 옵티컬 조형 작업과 실용성을 가진 아트퍼니처를 제작한다.